

#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미래시제를 통해서 본 시제와 양태의 상호작용\*

박 시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Pak Shihyeon. (2014). Some observations on uses of future tense in French and in Korean. *Language Research*, 50(1), 25-39.

In the present study we attempt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which is established between the uses traditionally called temporal and modal, or between the temporality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In order to realize its aim, we analyzed the French future tense and that of Korean through the observation on some of their uses. We wanted at the same time to offer help to those who learn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and those wh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apprehending the use of future tense in each language.

**Keywords:** 시제 tense, 미래 future, 시제 값 temporal value, 양태 값 modal value, 추측 conjecture

## 1. 서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앞날’, 즉 ‘앞으로 다가올 날’을 이르며 언어에서 발화순간이나 일정한 기준 시점보다 나중에 오는 행위, 사태 따위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제를 가리킨다. 우리는 ‘미래’가 발화순간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나게 되어있는 일을 기술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발화자가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 완전하게 담보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따르게 마련이며 추측, 짐작 또는 예측, 예견에 기반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사실을 언급하는 표현을 관찰하게 되었고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예문을 찾아 관찰·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시제와 양태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sup>1)</sup>

---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물론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도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제, 시상, 양태 등의 범주를 구분하기에 이르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이들 범주가 상호 작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프랑스어에서 *temps*은 ‘시간’도 되고 ‘시제’도 된다. 구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둘은 어차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시간의 개념에 따라 시제를 달리하여 표현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인간은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흐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언어로 표현한다. 오귀스땡(*saint Augustin*)은 이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Qu'est-ce donc que le temps? Si personne ne me le demande, je le sais ; mais si on me le demande et que je veuille l'expliquer, je ne le sais plus.*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겠는데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그걸 설명하려 하면 도무지 모르겠다.<sup>2)</sup>

시간과 시제가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논하지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때를 기준시점(현재<sup>3)</sup>)로 하여 그 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 행위, 사태 또는 상태를 기술하려면 과거시제를 사용하고 말하는 시점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건, 행위, 사태 또는 상태를 기술하려면 미래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미래의 사건, 행위, 사태에 대한 표현들을 자료체로 삼아<sup>4)</sup> 관찰·분석하고 꼭 시간적 기술만이 아닌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 등의 입장 표현이 그 안에 녹아있는 것을 적시함으로써 시제와 양태의 상호작용 및 유기적인 결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프랑스어의 미래 시제 표현

### 2-1. 시제 값과 양태 값

주로 문장의 술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어미 형태로 표현되는 프랑스어의 단순미래 분석에서 시제 값과 양태 값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함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sup>5)</sup> 다만, 어떤 경우는 시제적 의미가 우위를 점하고 어떤 경우는 양태적 의미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할 수 있을 뿐, 바꾸어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기술 대

---

사실을 자료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 표현에 대한 분석을 선택한 것임.

2) Conord, Alban (2001)에서 재인용.

3) 시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말하는 데에도 시간은 든다. 그러나 여기서 현재는 언어적 장치에서 구분하는 현재를 말할.

4) 프랑스어의 전미래와 역사적 사실 기술에서의 미래에 대한 분석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5) Álvarez Castro, Camio (2010).

상이 되는 사건, 행위, 사태가 발화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는 의미로 미래가 사용되고 해석되기도 하고, 발화자가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의도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 또는 100 퍼센트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미래가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시제적 의미로 사용하는 미래와 양태적 의미로 사용하는 미래가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어 문법에서 단순미래는 기본적으로 발화 순간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사실을 표지하는 시제로 본다.<sup>6)</sup> 단순미래 사용의 대표적인 예는 일기예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은 2014년 2월 16일 프랑스 일기예보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sup>7)</sup>:

(...) Certes, la journée commencera fraîchement (4 à 5 degrés selon les départements) et sous la grisaille. Mais en début d'après-midi, le soleil percera à travers les nuages et les températures monteront à 11 degrés, avec une légère brise toutefois.

물론 하루의 시작은 쌀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4 내지 5도) 젖빛 하늘 아래서가 되겠지만 오후 초엽부터는 구름사이로 햇빛이 뚫고 나오겠으며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바람은 있겠습니다.<sup>8)</sup>

발화순간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사실을 표지하는 미래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를 프랑스어 문법학자들이 각기 조금씩 달리 설명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그 내용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술하는 사건을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위치시키는 미래는 양태치를 가지게 마련이며 현실을 다소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추측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sup>9)</sup> (*Quel est ce bruit? Ce sera le vent.* 이게 무슨 소리지? 바람일거야/바람이겠지.)
- 예의상 완곡하게 표현하느라고 현재를 써도 되는 자리에 미래를 사용한다.<sup>10)</sup> (*Je vous demanderai une bienveillante attention.* 너그럽게 배려해주시부탁하겠습니다. *Cela fera 30 euros.* 30유료가 되겠습니다.)

6) Grevisse, Maurice (2014).

7) <http://www.metronews.fr/>

8) 통상적으로 한국 방송에서의 일기 예보에서는 모든 예보 내용의 술어가 “..겠습니다”로 끝난다. 우리는 미래를 표지하는 형태소로서 ‘-ㄴ (것)’과 ‘-겠’을 혼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나 일기 예보에서의 문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례를 따라 번역하였음.

9) Gardes-Tamine, Joëlle (1990).

10) Grevisse, Maurice (2014).

- 추측하고 짐작하는 미래.<sup>11)</sup> (*J'ai trouvé ce beau livre sur le bureau: ce sera le cadeau d'une admiratrice.* 책상 위에서 이 근사한 책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어느 펜의 선물일 거예요/선물이겠죠.)
- 부탁에도 미래를 사용할 수 있다.<sup>12)</sup> (*Tu sauras[=sache] seulement que j'ai réussi dans mon entreprise.* 난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알고 있도록].)
- 미래시제를 써서 히는 명령은 명령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보다 부드러운 효과가 있다.<sup>13)</sup> (*Tu te lèveras à huit heures demain matin.* 너 내일 아침 여덟시에 일어나려므나.)

다음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동사의 미래시제를 가르칠 때 주어의 인칭에 따른 동사 'être 이다'의 활용형을 학습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문들을 하나 하나 해석하면서 미래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 2-2. 예문 분석

- (1) *Je suis encore occupé, mais demain je serai disponible.*  
난 아직 바빠다, 그러나 내일은 시간이 날 거다.
- (2) *Tu es encore fatigué, mais demain tu seras en pleine forme.*  
넌 아직은 지쳐있다, 그러나 내일이면 원기왕성할거다.
- (3) *Il est encore mécontent, mais demain il sera satisfait.*  
그는 아직 불만스러워한다, 그러나 내일은 만족해할 거다.
- (4) *Nous sommes encore faibles, mais demain nous serons forts.*  
우리는 아직 약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강할 것입니다.
- (5) *Vous êtes encore inconnus, mais demain vous serez célèbres.*  
당신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유명해질 겁니다.
- (6) *Ils sont encore malades, mais demain ils seront guéris.*  
그들은 아직 아프다, 그러나 내일은 회복될 거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가 현재의 상태와 예측되는 내일의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들이다. 따라서 앞의 절에서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뒤의 절에서는 미래로 활용되었다. 발화시의 사태를 기술하는 현재와는 달리 미래로 언급된 내용은 미래에 실현

11) Riegel, Martin & Pellat, Jean-Christophe & Rioul, René (1998).

12) Grevisse, Maurice (2014).

13) Struve-Debeaux, Anne (2012).

될 것이라는 미래시제의 기본 값이 ‘demain 내일’이라는 미래의 때를 지시하는 어휘와 같이 표현된 것이다.<sup>14)</sup> 미래시제로 표현된 술어의 내용은 지금 당장 확인 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화자가 지시관계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당연히 내포되는 한편 미래로 표현된 술어의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발화상황과는 단절된 것이다.<sup>15)</sup> 다시 말하면 발화시에는 동사의 미래시제로 표현된 내용이 앞으로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미 실현에서 실현까지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술어의 내용이 실현될 때 이 거리는 없어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제 quand, si, dès que 등의 접속어로 인도되는 절과 함께 사용된 미래를 살펴보기로 하자.

(7) *Quand il sera riche, il achètera une belle voiture de sport.*

그가 부자가 되면 근사한 스포츠카를 살 것입니다./\*사셨습니다.

(8) *Je viendrai te voir dès que je pourrai.*

널 보러 올 수 있게 되는 즉시 올게/올 것이다./\*오겠다.

(9) *Si vous l'interrogez, vous saurez la vérité.*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진실을 아실 것입니다./\*아시셨습니다.<sup>16)</sup>

(7)은 그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어서 좋은 차가 없지만 그가 부자가 될 때 근사한 스포츠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살 것이다’로 해석하는 경우와 ‘사겠다’로 해석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살 것이다’는 미래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살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반면에 ‘사겠다’는 차를 구매할 의

14) 프랑스어의 미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더러는 미래 형태소로서 ‘-겠’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르 (것)’을 사용한 것은 ‘-겠’을 사용했을 때 (4)번 예문의 경우와 같이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반해서 ‘-르 (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4)번 예문의 경우에 ‘-겠’의 사용이 어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강해질 주체가 발화자를 포함한 경우여서 ‘-겠’의 의미가 발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게 되기도 하지만 내일이면 강해지게 생겼다는 짐작을 하는 것이 어색하게 된다는 것이고 (1), (2), (3), (5)의 경우, 즉 (1) *난 아직 바쁘다, 그러나 내일은 시간이 나겠다*, (2) *넌 아직은 지쳐있다, 그러나 내일이면 활기왕성하겠다*, (3) *그는 아직 불만스러워한다, 그러나 내일은 만족하겠겠다*, (5) *당신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유명해지겠습니다* 등의 번역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어화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들 경우의 ‘-겠’을 짐작, 추측 또는 발화자의 판단에 따라 그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즉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는 가능한 번역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임. 한편, 이들 예문에서는 동사가 모두 être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사 être의 특별한 의미 기능과 관련해서 보아야 할 문제도 분명히 있으나 이 문제는 다음의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함.

15) 결국 이 ‘단절’은 내일 ‘연결’로 바뀔 수 있음.

16) ‘serez’를 ‘아실 것입니다’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지만 이에 맞추어서 ‘아시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종의 예보처럼 받아들이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아시겠습니다’에 맞추어 번역함.

지를 표현하므로 주어가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je 나’일 때 어울리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를 (7)’에서처럼 ‘je 나’로 바꾸었을 때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물론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가 근사한 스포츠카를 구매하게 생겼다는 뜻으로 ‘사겠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여러 가지 징후를 봐서’ 등의 언급이 있거나 ‘아무래도’, ‘- 그러’와 같은 표현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sup>17)</sup>

(7) *Quand je serai riche, j'achèterai une belle voiture de sport.*

내가 부자가 되면 근사한 스포츠카를 살 것입니다./사겠습니다.

(8)은 주어의 일인칭이어서 오겠다는 약속 또는 다짐으로도 올 것이라는 예고로도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8)’에서처럼 이번에는 주어를 삼인칭으로 바꾸어서 보면 ‘올 것이다’라는 해석만 가능하다. 물론 (7)에서 본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생겼다는 뜻으로 ‘-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역시 역지스럽다.

(8) *Elle viendra te voir dès qu'elle pourra.*

넌 보러 올 수 있게 되는 즉시 그녀가 \*올게/올 것이다./\*오겠다.

(9)는 주어의 상대화자를 지칭하는 ‘vous 당신’이다. 미래에 확인될 일이 화자 자신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여서 약속이나 다짐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억측을 할 수도 없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게 되어있다는 예측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이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알아보려고 물어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정황상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경우여서 ‘-겠습니다’라는 번역이 어색하다.<sup>18)</sup>

이번에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는 미래를 살펴보자.

(10) *Cet après-midi, tu iras au supermarché faire les courses. Tu achèteras du lait, du pain et des fruits.*

오늘 오후에 슈퍼에 가서 시장을 보거라. 우유, 빵 그리고 과일을 사거라. / ?너는 오늘 오후에 슈퍼에 가서 시장을 볼 것이다. 우유, 빵 그리고 과일을 살 것이다.<sup>19)</sup>

17) “저 사람 지금 하는 짓으로 봐서 만약 부자가 되면 아무래도 근사한 스포츠카를 하나 사겠습니까 그러.”

18) 주 15 참조.

기본적으로 명령은 대화 상대자에게 하는 것이다. 미래시제가 명령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상대화자에게 미래시제로 표현된 술어의 내용 - (10)의 경우 시장을 보러 가서 우유와 빵과 과일을 사는 일 - 을 화자가 기술해줌으로써, 즉 상대에게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결국 화자가 상대화자에게 부탁 또는 명령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화자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상대와 미래로 표현된 술어의 내용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상대화자가 발화자의 명령을 수행하면 술어의 내용이 실현되면서 그 단절 상태가 끝이 나는 것이다. 즉, 발화자가 미래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단절의 거리는 상대화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을 겨냥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령, 부탁이 되는 것이다.

A. 필리올리는 미래가 «겨냥»을 내포한다고 한다. 즉, 발화시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서술관계가 그 후 언젠가 성립될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서술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 성립될 것이며, 어느 시점에 가서 효력이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것이라고 믿거나 짐작하는 것, 그럴 것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럴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미래라는 것이다. 미래시제로 말하는 발화자가 겨냥하는 바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제의 서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겠으나 꼭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태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나 현재와는 달리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이어서 결국 발화와 발화자가 겨냥하는 바의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본다.<sup>20)</sup>

따라서 우리는 미래시제로 표현된 술어가 담고 있는 내용, 즉 수행될 행위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행위 주체와 단절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겠는데 이는 동사 ‘aller 가다’의 현재와 함께 부정법을 써서 만들어지는 이른바 근접미래와 비교해보

19) 에스러운 표현으로서 ‘해라’할 자리에 쓰여, ‘마땅히 그렇게 하여라’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 어미 ‘-르지어다’를 사용하여 번역하면, 즉 “너 오늘 오후에 슈퍼에 가서 시장을 볼지어다. 우유와 빵 그리고 과일을 살지어다.”라고 하면 장엄한 어감을 띠는 문제는 있지만 ‘-르’ 때문에 미래형 어미를 살려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 (1) le futur implique une visée. On entend par là que, du repère énonciatif Site, on vise une relation prédicative non encore validée  $\lambda$  i. Puisque la relation prédicative n'est pas encore située (repérée énonciativement), elle est un énonçable (un construit notionnel); dire que l'on vise  $\lambda$  i signifie que l'énonciateur distingue une des valeurs de (p, p'), p pour fixer les idées. Il dit, considère, espère, veut, ordonne, craint, suppose, etc., que, en Ti, la relation prédicative sera validée. Ainsi en T1 = To, on a (p, p') et l'on vise p en Ti. Nous noterons la visée (p/p'), où la barre oblique marque que la visée de p dans (p, p') n'entraîne pas nécessairement la réalisation de p. On est donc, d'un point de vue modal, dans le non certain, puisque le certain se caractérise par une probabilité 1; il s'ensuit que, seuls, le révolu ou l'actuel sont du certain. (2) le futur est un aoristique. De façon schématique cela signifie qu'il y a une rupture entre l'énonciation de la visée (T1 = To) et sa validation visée par le biais de l'énoncé (Ti). (Culioli, Antoine (1990) : 146-147).

면 단절의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다. 근접미래는 현재에 닿아 있어서 가령 «*Bon, ben je vais te dire au revoir* 자 그럼 이제 작별인사 해야겠다»라고 친구와 헤어지려는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반하여 같은 말을 단순 미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Bon, ben je te dirai au revoir. 자 그럼 내가 작별인사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화시점과 확실한 단절을 표지하는 단순미래는 현재로부터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시점을 표현하는 어휘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Je vais lui écrire demain* 보다는 *Je lui écrirai demain*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에 위급한 상황을 환기시키는 *Attention*과 같은 표현과는 단순미래가 어울리지 않는다. (\**Attention, tu tomberas.*)<sup>21)</sup>

끝으로 현재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직설적인 표현이라 여겨서 완곡한 표현법으로 사용되는 미래의 경우와 이른바 추측하고 짐작하는 미래의 경우를 같이 보기로 하자.<sup>22)</sup>

(11) *Je vous demanderai une bienveillante attention.*<sup>23)</sup>

너그럽게 배려해주시사 부탁드립니다.

(12) *Ce sera tout? Cela fera en tout 36 euros.*<sup>24)</sup>

(필요하신 게) 이게 다일까요? 모두 해서 36유로가 되겠습니다.

(13) *Je ne suis pas sûr que ce soit une bonne solution. Je vous dirai même que vous avez tort.*<sup>25)</sup>

그것이 좋은 해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당신이 틀렸다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 *J'ai trouvé ce beau livre sur le bureau: ce sera le cadeau d'une admiratrice.*<sup>26)</sup>

책상 위에서 이 근사한 책을 발견했어요. 어느 팬의 선물일 거예요/ 선물이었죠

21) 이 때는 *Attention, tu vas tomber!* (조심해 넘어진다!)라고 할 것이다.

22) 완곡하게 표현하느라 사용하는 미래는 결국 주어가 일인칭일 때는 화자의 의지가 바로 드러나는 경우여서 완곡한 표현이라 하고 3인칭일 때는, 특히 동사가 'être'이다 또는 'avoir' 가지다'일 때 추측, 짐작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한편, 추측이나 짐작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완곡한 표현을 선택하는 화자의 입장이 확인되는 것이어서 미래시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한다는 분석과 추측하고 짐작하는 값을 가진다고 하는 분석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23) Grevisse, Maurice (2014)에서 빌려옴.

24) 시장에서 상인이 고객에게 사려던 물건이 또 없는지 물으며 값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말.

25) Struve-Debeaux, Anne (2012)에서 빌려옴.

26) Riegel, Martin & Pellat, Jean-Christophe & Rioul, René (1998)에서 빌려옴.



(15) *On somme. Ce sera le facteur.*

초인종이 울리네요 집배원일 거예요/ 집배원이겠지요

(16) *Notre ami est absent. Il aura encore sa migraine.*<sup>27)</sup>

이 친구가 안 왔군요 또 그 두통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11)~(13)은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느라 현재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사용한 경우이고 (14)~(16) 역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인 만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단지 화자가 짐작하는 바를 표현하는 이른바 *futur conjectural*, 즉 추측, 짐작을 뜻하는 기능이 우세하게 발휘된 미래의 경우이다.<sup>28)</sup>

지금까지 프랑스어의 단순미래가 화자가 말하는 때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상황, 사태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제로서의 가치를 지니지만 발화시에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가 예측하고, 추측하고, 짐작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어서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책임지게 되지 않으므로 양태적 가치를 띠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문을 관찰·분석하였다. 다음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미래 시제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해볼 것이다.

### 3. 한국어의 미래 시제 표현

국어학계에서는 한국어의 시제를 과거와 비 과거의 두 시제로만 구분하고 미래 시제가 부재함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남기심<sup>29)</sup>은 ‘-겠-’을 미래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옆방에서 기다리겠다»의 경우에서처럼 «결코 미래가 아닌 때에도 쓰인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였고 서정수<sup>30)</sup>는 «미래 시제 표시에는 일정한 문법 형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이익섭, 임홍빈<sup>31)</sup>은 «추측, 의지, 능력을 나타내 줄 뿐 시제 표시의 힘은 없다»고 하고 «국어에 미래시제를 설정할 근거는 어디에서든 찾기 어렵다»며 «국어에는 미

27) Álvarez Castro, Camio (2010)에서 빌려옴.

28)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미래의 경우 주로 만나게 되는 동사가 être, avoir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다른 동사 활용의 경우에는 대개 전미래가 사용된다. (“Tiens, elle revient! Elle aura manqué son train. 이! 재 그냥 되돌아온다! 기차 놓쳤나 봐/놓쳤을 거야/\*놓쳤겠다”)

29) 남기심 (1985).

30) 서정수(1993).

31) 이익섭, 임홍빈(1987).

래시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다. 이익섭과 채완의 공저인 <국어법론강의><sup>32)</sup>에서도 «국어에는 미래시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국어에서의 미래시제 부재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홍종선<sup>33)</sup>은 미래시제의 설정 문제를 논외로 한다고 하면서도 «‘-겠’을 일단 미래 시제성 표현의 범주»에 넣고 ‘-겠’을 미래 형태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에 ‘-ㄹ 것’은 미래의 사실을 추측하거나 예정하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인정하면서 미래시제 형태소로서 인정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고 «국어의 시제 형태소는 서법이나 동작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들 세 문법 범주가 서로 관련을 갖는, 어느 정도는 범어적인 속성이기도 하며, 시제 형태소들이 형성 단계에서 이미 서법이나 동작상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도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다만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미래형태소의 의미 값을 분석하여 그것이 때를 지시함과 동시에 발화내용에 대한 발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인 양태와 맞물려있는 점을 밝히려 하는 입장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겠’이나 ‘-ㄹ (것)’<sup>34)</sup>을 미래시제 형태소로 규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일반적인 시제 구분,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의 틀 속에서 이들 형태소의 행태를 예문의 의미해석을 통해서 관찰하고 분석할 것이다.

### 3-1. 시제 값과 양태 값

앞서 단순미래가 사용된 프랑스어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단순미래가 시제적 의미만을 표지하는 것이 아니고 발화자의 의도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며 발화자의 추측 또는 짐작이라는 이른바 양태적 의미를 동시에 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제적 의미로 사용하는 미래와 양태적 의미로 사용하는 미래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겠’과 ‘-ㄹ (것)’<sup>35)</sup>이 미래의 일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형태소라고 보고 이들이 사용된 경우의 예문들을 관찰할 것이다.

32) 이익섭, 채완(1999).

33) 홍종선 (2008).

34) ‘ㄹ (것)’의 ‘것’을 괄호 안에 넣은 이유는 예정의 뜻을 표현하는 술어의 종결형에 대개의 경우 ‘것’이 따르지만 실제로 예정 또는 미 실현의 의미는 ‘ㄹ’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5) 앞에서 프랑스어 예문 (8) Elle viendra te voir dès qu'elle pourra를 번역할 때 우리는 ‘-겠’을 사용하지 못하고 ‘ㄹ 것’을 사용했다. (널 보러 올 수 있게 되는 즉시 그녀가 올 것이다/\*오겠다)

### 3-2. 예문 분석

프랑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일기예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미래의 일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은 2014년 2월 22일 17시에 발표된 기상청 날씨정보 대본의 일부이다:

(17)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크게 춥지도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9도, 광주 12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일부 내륙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고요,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중부부산간에는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1.0도, 청주 -2.0도, 부산 3.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9.0도, 강릉 5.0도, 대구 12도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위의 대본에서 역시 대부분의 술어에 형태소 ‘-겠’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날씨 예보에 사용된 ‘-겠’을 가리켜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하고 시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의 두 예문에 대한 홍중선의 분석을 잠시 살펴보자.

(18) 내일은 여기에서 김 북동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겠습니다.

(19) 내일은 여기에서 김 북동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을 것입니다.

홍중선에 따르면 (18)은 일기예보에서와 같이 “단순히 미래의 사실을 말하지만” (19)는 “미래의 사실을 추측하거나 예정하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겠’과 ‘ㄹ (것)’이 “모두 의지나 추측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겠’이

단순 미래도 표현할 수 있는 데에 반해 ‘-ㄹ (것)’은 그러한 표현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런데 (20)과 (21)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겠’이 단순 미래를 표현하고 ‘ㄹ (것)’이 미래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

(20) 내일도 같은 시각에 이 곳으로 오겠습니다.

(21) 내일도 같은 시각에 이 곳으로 올 것입니다.

오히려 (20)의 경우에 ‘-겠’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ㄹ (것)’을 통해 미래를 표현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18), (19)에서는 주어가 화자 자신이 아닌 피아노 독주회라는 제 3자이고 (20), (21)의 경우에는 주어가 발화자 자신이라는 점이 ‘-겠’과 ‘ㄹ (것)’의 의미 해석을 달리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의 제약을 떠나서 ‘-겠’은 단순히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ㄹ (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겠’을 미래 표현 형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는 ‘-겠’이 (22)에서처럼 과거를 표현하는 형태소 ‘-았/았’과도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23)에서처럼 ‘지금’과도 양립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겠’이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형태소라 할 수 없고 바로 그 때문에 한국어에 미래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시제와 양태라는 범주가 각기 존재하나 이들이 결국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작용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는 판단이다.

(22) 그 사람 이미 밥을 다 먹었겠다.

(23) 그 사람 지금 운동하고 있겠다.

일기 예보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소로서 미래시제 형태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추측,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 형태소로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겠’을 좀 더 살펴보자.

(24) 내일도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24) 내일도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것입니다.

(24)의 ‘-겠’은 ‘내일’과 함께 미래의 일기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형태소이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한 예측 내용이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단순히 객관적 미래의 사실이 될 정보로서 전달하는 사람이나 운송의 추측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이 정보를 접하는 우리는 일기예보에서 어김없이 만나는 표현이어서 단순한 미래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24)'처럼 'ㄹ겠' 대신에 'ㄹ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일기예보에서는 'ㄹ 것입니다'라 하지 않고 'ㄹ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ㄹ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됨을 알 수 있다.<sup>36)</sup> (24)와 (24)'는 내일의 날씨가 대체로 맑을 것임을 알리는 말로서 그 내용의 차이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발화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경우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장담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굳이 미세한 의미 차이를 따져본다면 (24)의 경우는 기압골 관측 자료를 보면 날씨가 맑게 생겼다는 것이고 (24)'의 경우는 맑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하면 어떨지? 부사어 '대체로'의 자리에 '아마도' 또는 '틀림없이'를 환입했을 때 (24)보다는 (24)'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sup>37)</sup>

강신항 외(1990)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ㄹ겠'과 'ㄹ (것)'을 공히 미래시제 표현 형태소로 간주하는 것이다.<sup>38)</sup> 일단 'ㄹ겠'과 'ㄹ (것)'을 미래시제 형태소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들 형태소로 표현된 "사건시가 모두 발화시 이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 형태소들이 "단순한 미래시제 이외에 여러 가지 양태적 의미도 나타낸다."고 하고 그 양태적 의미가 추측, 의지, 가능성이라고 한다.<sup>39)</sup> 예문 분석의 세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시제와 양태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관찰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 4. 결론

우리는 미래시제가 의도/의지나 추측/짐작을 나타내는 것을 프랑스어의 경우에서도 확인했다. 문장의 주어가 일인칭일 때는 발화자의 의도나 의지로 나타나고 삼인칭일 때는 추측이나 짐작을 나타내게 되어있다. 제 삼자와 관련하여 미확인 사건, 행위, 사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추측하고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서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시제는 기준 시점의 이후를

36) 예문 (17)에서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가 발견된다.

37) 'ㄹ겠'과 'ㄹ (것)' 중 어느 쪽이 더 양태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주어 환입 실험, 술어 환입 실험, 부사어 환입 실험, 의문문, 부정문 변형 실험을 차례로 다 해봐야 할 것이나 후속 과제로 미룬다.

38) 우리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하겠다.

39) 다만, 'ㄹ 것이다'가 'ㄹ겠'보다는 양태성이 약해 보인다고 한다.

지시하는 시제적 의미와 함께 불확실성에서 오는 양태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이인칭을 문장의 주어로 하는 경우, 즉 상대화자에게 하는 말에서 술어의 미래는 상대화자가 그렇게 해줄 것을 화자가 요청하는 경우여서 명령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한국어학자들 간에 ‘-겠’과 ‘-ㄴ (것)’의 양태적 의미만을 인정하면서 «국어에 미래 시제를 설정할 근거는 어디에서든 찾기 어렵다»<sup>40)</sup>고 하여 미래시제가 한국어에는 없다고까지 하는 입장이 있으나, 우리는 의지나 추측, 가능성의 표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것이며 미 실현 사건, 즉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추측하고 의지를 보이고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당연하여 양태치와 시제치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시제 범주와 양태 범주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결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원리를 언어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가 한국어에서의 미래 시제 표현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예문들을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관찰하고 분석하여 시제와 양태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이들에게는 프랑스어의 미래시제 용법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어의 미래 시제 용법을 파악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감히 줄고의 목적으로 삼았다.

## 참 고 문 헌

- Álvarez Castro, Camio. (2010). Usages temporels et usages modaux du futur en français : dichotomie ou articulation? *La linguistique* vol. 46. 2010-2, 109~126.
- Conard, Alban. (2001). *Le temps*. GF Flammarion, 88~92.
- Culioli, Antoine. (1990).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 Opérations et représentations, T.1. Ophrys.
- Culioli, Antoine. (2002). *Variations sur la linguistique*. Klincksieck.
- Culioli, Antoine & Normand, Claudine. (2005). Onze rencontres sur le langage et les langues. Ophrys.
- Duval, Marc. (2006). Essai sur la construction verbale en coréen. *Construction verbale et production de sens*. Actes du collo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he-Comté. 75~85.

40) 이익섭, 채완 (1999).

- Gardes-Tamine, Joëlle. (1990). *La Grammaire*. Armand Colin.
- Grevisse, Maurice. (2014). *Le Bon Usage, version électronique - langue française*. De Boeck Duculot.
- Lebaud, Daniel. (2012). Sémantique grammaticale : Autour d'emplois «marginiaux» du futur simple *Actes du Colloque Miroir*. 143~157.
- Leean-Boux, Danielle. (2000). *Grammaire du verbe français*. Nathan université, 161~164.
- Pak, Shihyeon & Blais, Antoine. (2011). Analyse linguistique de prévisions dans un cadre topologique. *Revue d'études Franco-Coréennes*. Vol. 57. 85~109.
- Pak, Shihyeon & Blais, Antoine. (2012). Une analyse du futur : du possible vers le quasi-certain. *Revue d'études Franco-Coréennes*. Vol. 62. 481~506.
- Riegel, Martin & Pellat, Jean-Christophe & Rioul, René (1998).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PUF. 314~315.
- Struve-Debeaux, Anne. (2012). *Maîtriser la grammaire française*. Belin. 162~165.
- Vet, Co. (1985). Univers de discours et univers d'énonciation : les temps du passé et du futur. *Langue Française* Vol. 67 n°1, 38~58.
- 강신향 외. (1990).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94~106.
- 남기심. (1985).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1~33, 93~132.
- 서정수. (1993). 『국어 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185~230.
- 이익섭, 임흥빈. (1987). 『국어문법론』: 학연사. 176~181.
- 이익섭,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76~181.
- 홍중선. (2008). “국어의 시제 형태소 체계와 그 기능 변이”, 『한글』, 282, 97~123.

박시현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국어대학교

전자우편: shpak@hufs.ac.kr

접 수 일 자: 2014. 2. 24

수정본 접수: 2014. 3. 18

게 재 결 정: 2014. 3. 24

